



2면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

# 전주매일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음 5월 4일)

제32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1406억 펀드로 '전북 스타트업' 키운다

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 결성

김지사 벤처펀드 1조원 조성 선포 후 첫 펀드 조성

2032년까지 운영... 성일하이텍 등 3개사도 동참

"투자자 여러분! 전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로 성장하는 기쁨과 성과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1조 펀드 조성'의 주춧돌을 다지고 있다.

전북도는 20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 원 규모의 전북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이하 전북-KDB 혁신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이는 지난 8일 김 지사가 전국 투자업계 30여 대표들이 참석한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벤처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첫 번째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결성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펀드에 출자하는 지역 선배기업 성일하이텍(주), 비나텍(주), (주)전북은행 등 3개사와 펀드 운영사의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KDB산업은행 주관으로 조성되는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로 KDB산업은행

740억원, 전북도 115억원, 운영사 221억원, 지역 선배기업 3개사 25억원 등 총 1,406억원 규모로 2022년까지 10년동안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지사가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강 회장에게 "차별지 기업들이 풀려드는 새만금에서 전북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도와달라"며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강 회장이 화답하며 양 기관이 '전북지역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에 대규모 펀드까지 결성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전북-KDB 혁신펀드는 그동안 지역펀드를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거듭난 성일하이텍(주), 비나텍(주)과 지역은행인 (주)전북은행 등 3개사가 25억원을 출자해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약속했다.

지역펀드 조성에 있어 지역 선배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앞으로 지역내 선배기업들의 투자



20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전북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 결성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 조성 등 후배 기업간 새로운 연결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대표 이병우), 현대기술투자(대표 권오윤), 인라이프벤처스(대표 박문수) 등 펀드 운용사 3개사가 전북 투자 운영전략을 발표하며, 전북의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성장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이병우 대표는 "올 들어 투자업계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북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미 전북 경제를 견인할 투자 기업을 탐색하는 열기로 가득차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동안 역동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1조원가량의 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은행과 함께 주춧돌을 높게 때 더욱 의미있다"며 "전북도의 1조원 펀드가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지역

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6~7기 동안 7개 펀드 2,104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민선 8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2,246억원의 펀드 결성(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원, 전북강원지역혁신 벤처펀드 840억원)이 이미 확정됐고 2026년까지 1조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간투자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훈 기자

### 올해 글로벌대학30 에비지정 명단 발표

#### 도내에서는 전북대 '유일'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글로벌대학30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을 포함한 15곳이 예비 선정됐다. 10월까지 이 중 10곳을 뽑는 본지정 평가가 남아 있다.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글로벌대학30'은 2028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30곳 육성을 목표로 학교당 역대 최대인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중앙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 받게 된다.

전북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예비지정에서는 대학 108곳이 낸 혁신기획서 총 94건 중 15곳이 뽑혀 경쟁률은 6.27대 1이었다.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대는 19개교다. 국립대가 11개교, 사립대가 7개교였다. 전문대는 공립대인 경북도립대 단 1곳만 빼고 모두 탈락했다.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27곳의 신청서 13건 중에서는 4건이 선정됐다. 국립대 간 통폐합 3건, 국립대와 도립대 간 1건이다. 국립대 간 통폐합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했고 국립대+도립대는 100% 합격했다.

반면 동일 법인 내 통합을 신청하는 등 사립대 간, 사립 일반-전문대간 공동 신청서는 모두 탈락했다. /뉴스

## 고군산군도 지질자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선유도 망주봉·말도 습곡구조 등 10개소 지질명소로  
전북 서해안 등과 다른 '도서형'...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선유도 말도 등 고군산군도의 우수 지질자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20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제28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안)이 최종 의결됐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도 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도내 3호 국가지질공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에 인증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총 면적은 113.01km(도서 및

해역 68.4, 육상 44.6)이며, 말도 습곡구조, 선유도 망주봉 방축도 독립문바위 광대도 책바위 무너도, 이미도, 대장도와 할매바위, 신시도, 명도 얼룩말바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10개소의 지질명소가 분포되어 있다.

지난 5월 고창·부안 전역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데 이어,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다시 한번 전북도 서해안 전역의 학술적 우수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고군산군도가 전북 서해안(해

안형), 진안·무주(산악형)와는 차별화된 도서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돼 향후 도내 생태관광 브랜드 다양화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인증으로 국가로부터 연간 약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또 탐방 편의성 제고와 지질공원 외연 확장에 필요한 탐방객 센터 조성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